

22nd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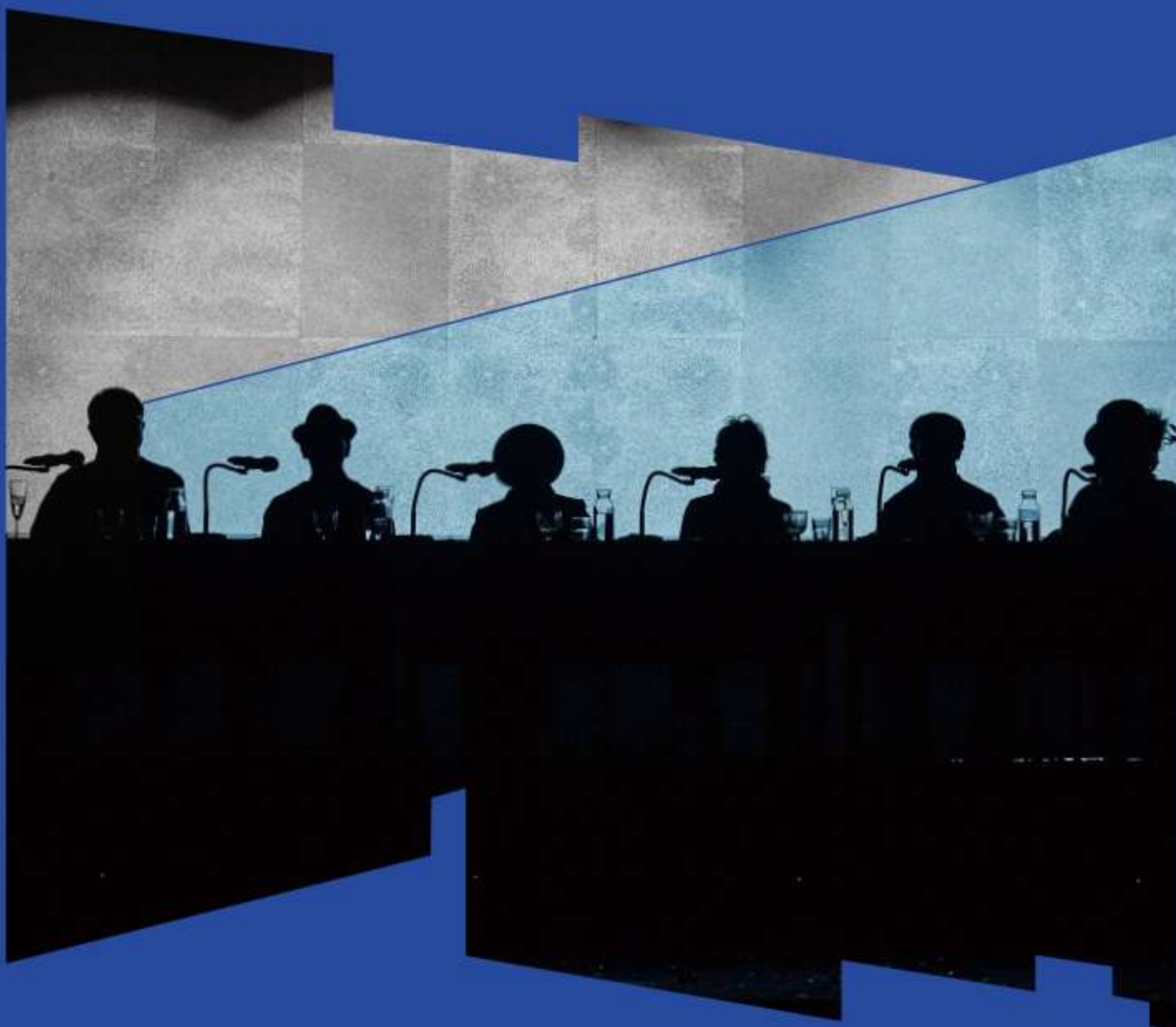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연극 Theater ●●●●●

잠자리 연대기

All The Sex I've Ever Had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일시 Date

10.8.Sat. - 10.9.Sun 4pm

장소 Place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 Arts Theater-Main Hall

입장료 Ticket

R 50,000won
S 30,000won공동연출 이진엽, 라이언 루이스,
카노코 타무라Co-Direction Jin-yeob Lee, Ryan Lewis,
Kanoko Tamura공동제작 코끼리들이 웃는다,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
/대런 오도넬Co-??? Elephants Laugh,
Mammalian Diving Reflex
/Darren O'Donnell

관람연령 15세 이상

Rating 15 and over

공연시간 90분

Duration 90min.

초연 2021. 12. 광명시민회관

Premiere 2021. 12. Gwangmyeong Citizen Hall

후원 광명문화재단, 캐나다예술위원회

Supported by Gwangmyeong Cultural Foundation,
Canada Council for the Arts

※ 본 공연은 전 회차 아래 사항을 제공합니다.

~~수어통역, 한글자막, 터치투어, 영문자막~~
문자통역, 시각음성해설

한국 근현대 섹스 연대기

<잠자리 연대기>는 어르신들의 사랑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다.

0세부터 100세까지, 긴 세월 속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섹스다. 이들의 이야기는
개인사, 가족사부터 사회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다양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도,
용기를 가질 수도 있다.

작품 내용

1922년, 어르신의 출생을 시작으로 2022년 지금까지.
100년의 시간에 담긴 6명의 어르신들의 인생을 읽어 내려간다.
딸과 아들이자 친구, 연인, 아내이자 남편, 어머니이자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존재한 날들을 회상하며.

, 이동차원



연출 Direction

이진엽 Lee Jinyeob

공연의 언어로 사람 간의 연결을 만듭니다.

'코끼리들이 웃는다' 단체의 대표이자 연출로, 극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대표작으로 <몸의 윤리(Bodies in the dark)>(2015),
<물질1 물질(Muljil)>(2016), <물질2, 물질하다가(Muljil2)>
(2018),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3pm to 3pm, 4pm to
4pm)>(2019), <독산, 여러분(People from Doksan)>(2020),
<커뮤니티 대소동(Unseen Turmoil)>(2022) 등이 있다.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주로 장소성, 커뮤니티, 관객참여를 키워드로 작업하는 공연예술 단체.

살아가는 공간을 무대로 삼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연을 완성한다.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 Mammalian Diving Reflex

1993년 토론토에서 설립된 커뮤니티 기반 공연 전문 단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장벽을 허물고 세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22nd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연극 Theater ●●●●●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Tree Won't Seek for Shoe Store

그린피그 greenpig



일시 Date

10.6. Thu. - 10.7. Fri. 7:30pm

10.8. Sat. - 10.9. Sun. 3pm

장소 Place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Daehakro Arts Theater Small Hall

입장료 Ticket

30,000won

제작 그린피그

Created by greenpig

원작 윤영선

Original Text Yoon Youngsun

글쓰기 전성현

Additional Text Jeon Seonghyun

연출 윤한솔

Conceived and Directed Yoon Hansol

관람연령 12세 이상

Rating 12 and over

공연시간 80분

Duration 80min.

초연 2012. 윤영선페스티벌/정보소극장

Premiere YOON Youngsun Festival

/Joungbo Little Theater

그린피그의 'e(환경)-삼부작'
시대를 향해 뒤틀린 거울을 비추다!

'신발'로 대표되는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역설을 윤영선의 '나무'에 대비한 작품.
윤영선의 시적이고 멜랑콜리한 언어 위로 여러 에피소드를 짰은 호흡으로 교차하며
그린피그만의 시선으로 탄생한 '세상에 없던 우화'를 들려준다.

작품 내용

윤영선의 7쪽짜리 초고에서 시작해 그린피그 배우와 연출의 공동창작 및
전성현 작가의 추가, 재구성을 거쳤다. 작품에는 동화, 신화, 고전, 상상 등에서 출발한
다양한 모티브가 담겨 있다. 정휘창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작품의 중심을 관통하는
<원숭이 꽃신 Monkey Flower Shoes>, 직립 보행과 고통의 근원을 다룬 <태아 잡담
Fetal Chatting>, 태아와 엄마의 협상을 보여주는 <계약 Contract>, 아버지의 죽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까지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교차한다.

무대에는 봉제공장의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폐기물 산이 놓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인류의 끝을 암시한다.

특히 '태어나고 싶지 않은 태아'의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인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게 한다.

그린피그의 작품 세계는 미시사적으로 보이지만 시대의 거대한 이면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는 본 작품을 초연했던 10년 전보다 오늘날 더욱 가까운 단어가 되었다.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 문명이 처한 위치를 고찰하고,
위기의 시대에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사진 장우재

연출

윤한솔 Yoon Hansol

동시대의 단면을 해체하여 무대 위로 재조립하는 연출가

예술만이 세상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대 위에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무대를 통해 시대의 양면을 낚은 시선으로 제시하여
본질에 가까이 가고자한다.

대표작으로 <두뇌수술 The Brain Surgery>(2012),
<의붓기억-억압된 것의 귀환 Stepmemories: Return of the Oppressed>(2012), <젊은 후시딘 Young Fusidin>(2014),
<이야기의 方式, 노래의 方式.-데모 버전 The way of story-telling, the way of singing-demo version>(2016),
<동시대인 Contemporaries>(2020), <바바리맨-킬라이크 아이두 Babariman-killlikeido>(2021) 등이 있으며, 2016년 제18회 김상열연극상, 2012년 제5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두뇌수술 The Brain Surgery>), 2011년 제2회 두산연강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그린피그 greenpig

불온한 상상력, 그린피그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새로운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의심 없이 혹은 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 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연극을
찾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제와 예술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린피그의 작업은 저항 혹은 엑소더스를 위한 매뉴얼 혹은 도구입니다.

22nd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연극 Theater ●●●●●●

콜타임

Call Time

호랑이기운 Tiger Power Theate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종민

일시 Date

10.6.Thu. - 10.7. Fri. 8pm
10.8.Sat. - 10.9. Sun 3pm, 7pm

장소 Place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SFAC theater QUAD

입장료 Ticket

30,000won

연출 이오진

Direction O-jin Lee

관람연령 12세 이상

Rating 12 and over

공연시간 75분

Duration 75min.

초연 2022.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Premiere 2022. Daehakro Arts Theater-Small Hall

※ 본 공연은 아래 사항을 제공합니다.

- 수어통역·한글자막 : 총 3회차 제공 / 10.8(토) 3시, 7시 · 10.9(일) 3시
- 영문자막 : 총 1회차 제공 / 10.7(금) 8시



40대의 여자배우와 20대의 페미니스트 조연출이 빈 극장에서 처음 보는 시간을 마주하는 이야기

극단 생활 12년차 여자배우 범순,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한 페미니스트 조연출 은호.

둘은 한국근대희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재 극작가 이진오의 <단아는 왜 20세기에 몸을 던졌나>를 공연 중이다.

범순이 대사를 틀려 공연을 말아먹은 다음 날, 둘은 콜타임보다 1시간 일찍 극장에 도착하고

둘 사이엔 우르릉광광 천둥과 벼락이 친다.

그리고 이제 더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작품 내용

작품은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인지 조금 늦게 알아차린다” 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작품에는 2인의 여성이 등장한다.

그들은 배우와 스태프가 극장에 모이기로 약속한 시각인 ‘콜타임’보다

한 시간 일찍 극장에 도착하고, 콜타임이 오기 전까지 대화하며

서로를 향해 열리는 낯선 감각을 발견한다.

개인의 삶에서 전에 없던 발견과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통째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와,

늘어나는 질문들 속에서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사회를 감내해야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콜타임>은 사유하고자 한다.



연출

이오진 Lee O-jin

호랑이기운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연출한다.

동시대의 첨예한 화두를 무대로 가져와

날것의 드라마로 무대에 올린다.

연출 <청년부에 미친 헤인이 A Great bitch of a Korean Church's Youth Group>(2021) <밤에 먹는 무화과 At Night, Nodoay's Hotel>(2021) <연애는 반드시 망한다 Love is Doomed>(2020) <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Peerless>(2020),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Can I be a Feminist in This Life?>(2018) 외 다수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

2019 서울문화재단 NEWStage 연출 부문 선정

2016 대산창작기금 수혜

2013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연극 부문 선정



호랑이기운 Tiger Power Theater

2017년 페미니스트극작가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기어이 한 발을 내디디고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립니다.

22nd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연극 Theater ●●●●●

땡큐, 돈키호테

Thank you, Don Quixote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ater company bamunsa



일시 Date

10.20.Thu. - 10.21.Fri. 7:30pm

장소 Place

국립정동극장 세실

National Jeongdong Theater of Korea_Cecil

입장료 Ticket

10,000won

연출 최은영

Direction Eunyoung Choi

후원·협력 부산문화회관

Supported and Cooperated by
Busan Cultural Center

관람연령 12세 이상

Rating 12 and over

공연시간 60분

Duration 60min.

초연 2020. 부산 일터소극장

Premiere 2022. Busan Ilteo Small Theater

죽을 수밖에 없는 연극배우와 살 수밖에 없는 노인의 연극 같은 삶, 삶과 같은 연극!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는 교차적이고 대조적인 두 인물들에게 찾아온
돈키호테의 일갈을 통해 삶을 넘어선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작품 내용

코로나로 인한 공연상실과 생활고로 한 젊은 연극배우가 자살을 시도한다.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끝내고 싶어 하는 한 노인은

병원의 강제 진료와 자주 흐려지는 정신상태로

온전히 스스로의 죽음을 끝내지 못한 채 병원을 탈출한다.

여배우의 자살을 우연히 목격한 노인은 그녀를 만류하지만,

결국 그녀의 자살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며 연극을 시작하는데...



연출

최은영 Choi Eunyoung

배우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연출의 이름으로 연기하며,
작가의 이름으로 극을 만들어가는 연극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임 연출, 최은영은
배우이자,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다. 그녀는 내면과 외연의
다양한 시선의 교차 속에서 인간의 본질 너머의 본질을
고민한다.

- 대표작

<스티그마(STIGMA)>(2021), <관리의 죽음(Death of
officials)>(2020), <정과정(JeongGwhaJeong)> (2017),
<표풍 (Gale)>(2016),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
(2016), <그리워할,戀(predestined to long)>(2013),
<로딩하는 여자(Woman who loads)>(2013)외 다수

- 수상경력

2016년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표풍(Gale)>(2016)
부산연극제 희곡상 (3회 수상 : <그루터(geuluteo)>(2022),
<그리워할,戀(predestined to long)>(2013), <죽어피는 꽃
(Herstory 2: Flower Blooming in Death)>(2012))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2회 수상)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최우수연기상 (2회 수상) 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ater company bamunsa

1997년 홍성모 감독을 필두로 창단되어 2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자아의 본질이 닿을 수 있는 근원적 인간성의 탐구와 그로 인해 교차되어지는 본질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 본 극단은 인간과 자연, 자아와 우주, 내면과 외연의 교차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으로 무대 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22nd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연극 Theater ●●●●● 다큐멘터리 Documentary ●●●○○

섬 이야기

The Story of Island

크리에이티브 VaQi Creative VaQi



일시 Date

10.20.Thu. - 10.21.Fri. 8pm

10.22.Sat. - 10.23.Sun. 3pm, 7pm

장소 Place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 Arts Theater-Main Hall

입장료 Ticket

30,000won

연출 이경성

Direction Kyungsung Lee

후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Supported by SFAC

협력 KIAC(Kinosaki International Art Center), 코르코르디움

Cooperated by KIAC, CorCordium

관람연령 15세 이상

Rating 15 and over

공연시간 100분

Duration 100min.

초연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Premiere 2022 SPAF

2022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후원 Supported by



세월호, 분단현실, 검열 등 국가폭력의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리서치하고 다양한 미학적 형식으로 공연화 했던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가 제주 4.3 사건에 주목한다.

그들은 실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20살까지 자란 배우 장성익과 함께 수 개월간

제주도 4.3 관련 학살지를 방문하고, 생존자 및 연구자들을 인터뷰하며 오늘날 4.3 사건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해왔다.

그 다층적 시간의 선들이 엮이고 엮이어 올해 10월 처음 관객을 만난다.

그러한 과정은 극단으로서 다시금 연극은 무엇이고,

그 무엇이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마주하게 해주었다.

제주 섬 공항의 활주로 아래에서 70여 년 만에 수백 구의 유해들이 발견된다.

누군가는 그 유해를 통해 7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가족을 찾기도 한다.

사실 유해는 공항뿐 만 아니라 섬 곳곳 땅 아래에 묻혀있다.

그 구체적 몸의 흔적들이 땅 위로 하나 둘씩 올라오면서

70년 전 섬에서 일어났던 학살과 저항의 기억들이 서서히 현재로 밀려 올라온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지막 한구의 유해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지금 여기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출

이경성 Kyung-sung Lee

우리 사회의 동시대적 이슈를 연극언어로 포착하며 새로운 미학적 전략들을 고안하는 연출가

2008년 동료들과 크리에이티브 VaQi를 창단, 현재까지 연출가, 공연작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극장공간과 텍스트 위주의 연극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협업을 추구하고 폐건물, 광장, 거리, 횡단보도 등 일상의 공간에서 공연 만들기를 시도해 왔다.

대표작으로는 <남산 도큐멘타>, <비포 애프터>, <워킹 홀리데이>, <러브 스토리>, <보더라인>등이 있으며 47회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 두산연강예술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연출상,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3대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리에이티브 VaQi Creative VaQi

2008년 창단된 크리에이티브 VaQi(바키)는 집시들의 상징인 수레바퀴를 뜻하고 "Veritas, art, Question, imagination"의 첫 자가 모인 조합이다. 수레바퀴처럼 자유롭게 세상 곳곳을 향해 굴러가고 구석구석 아름다움을 전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언어 중심의 연극이 아닌 오브제와 몸, 미디어와 설치 미술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재료를 활용한 공연 예술 작품 만들기를 추구한다.